

音韻論의 最近 問題들*

金 鎮 宇
(University of Illinois)

여러분들께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할텐데 귀국후 지방에 있는 집에 가 있었던 관계로 아직도 인사를 올리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늦게나마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 좀 과장된 소개 말씀을 받고 시작하려니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당히 감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으신 것이 최근의 언어학계의 동향, 특히 Chomsky 와 그 일부 제자들 간의 이론적인 분규 같은 것에 흥미가 있으시겠지만 문장론의 방면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그리고 이홍배 선생님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분야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최근 음운론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中和作用(Neutralization)

우선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적인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음운이 어떤 환경에서는 하나로 줄어드는 것을 중화현상이라고 합니다. 가령 국어에서

낫/nas/ 낫/nac/ 낫/nac^h/ 낫/nat/ 낫/nat^h/

과 같은 것들이 뒤에 모음이 오면 ‘나슨, 나즌, 나촌’등으로 되어 제 음가를 갖지만 자음이 뒤따르다든지 어말에서는 이 모든 받침들이 중화되어 ‘낫’/nat/으로 바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金鎮宇교수가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에서 1970년 9월 3일에 한 학술강연을 녹음에서 기록한 것이다. 金교수는 延大 英文科를 거쳐 UCLA에서 언어학으로 Ph. D.를 획득했고(論文: *The Linguistic Specification of Speech*, 1966), MIT에서 1년간 연구생활 후, University of Illinois에 재직 중이다. 主要論文으로는 “On the Autonomy of Tensivity Feature in Stop Classifi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Stops)”, *Word* 21.3 (1965);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1968); “Review of Liberman: *Intonation, Perception and Language*,” *Language* 44 (1958); “A Theory of Aspiration,” *Phonetica* 21 (1970); “Boundary Phenomena in Korean,” *Papers in Linguistics* 2:1 (1970), “Two Phonological Notes: A-sharp and B-flat,” To appear in M. Grame, ed., *Contributions to Generative Phonology*; “Opposition and Complement in Phonology,” To appear in Kachru et al, eds., *Papers in Linguistics in Honor of the Kahanes*; “Review of Joseph S. Perkell: *Physiology of Speech Production*,” To appear in *General Linguistics* 등이 있다. (坤).

$$\left. \begin{array}{l} /nas/ \\ /nac/ \\ \vdots \end{array} \right\} \rightarrow /nat/ \text{ --- } \left\{ \begin{array}{l} C \\ \# \end{array} \right\} \quad C = \text{Consonant}$$

그러나 이와 반대로 /nat/을 원형(underlying form)으로 잡고 이것이 환경에 따라 /nas/, /nac/ 등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의 것보다 이치가 잘 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원형이 같은 모음 앞에서 어느 때는 /s/로 어느 때는 /c/로 되는지를 쉽게 구별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형을 먼저 규칙처럼 여려가지로 잡아 놓고 그것을 환경에 따라 음운규칙을 세워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중화(absolute neutralization)라고 해서 A와 B라는 음소들이 있을 때 (물론 두 개 이상에 대해서도 이야기 될 수 있지만 들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것이 어느 환경에서는 C라는 음소로 바뀌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운 첫번 규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충분한 구분이 있어서, 자음 앞이나 어말의 환경에서만 그렇고 모음 앞에서는 제 음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중화되었다 해도 전혀 그 원음가가나 타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중화라고 하는데 이같이 원음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왜 중화라고 하는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몽고어나 토이기어에서 전음 대 후음(front vs. back)이 모음조화를 이루는데 다음 표에서 보이듯이 i에 대응되는 후음이 없습니다. <공백은 ()로 표시.>

front	⋮	back	
i	ü	()	u
e	ø	a	o

다시 말하면 이 모음조화에서 i를 제외한 모든 모음이 전후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i모음만은 중성이어서 첫 음절에 왔을 경우 그 다음에는 전음이나 후음이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i의 음가 자체만으로 전모음과 모음조화를 이루는지 후모음과 조화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i가 중성모음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규칙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i뒤에 오는 모음이 전음인지 후음인지 알게 할 수 없는가 해서 생각해 낸 기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도 후모음 i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전후대립을 규칙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몽고어나 토이기어 ()에 해당하는 후모음 i이 없으니까 이를 다시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i는 모두 i로 다시 환원시키게 됩니다.

바꿔말하면 중성자인 i를 모음조화 규칙을 간편히 세우기 위해 인공적으로 전성과 후성으로 이분하여, 그 언어에 실제 음가는 하나만 존재하는 모음을 두개의 음운으로 나누고 간편한 모음조화 체계로 규칙화하여 예외를 없애 놓자는 것입니다. 전에는 i 하나만으로는 전음과 후음 중 어느 것과 모음조화 하는지 몰라서 예외를 낳게 했는데, 이제는 인공적인 두

음운을 가정하여 /i/ 뒤에는 모두 전음, /i/ 뒤에는 모두 후음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i/가 실재하지 않으니 이를 배제하는 $i \rightarrow i$ 라는 규칙을 나중에 첨가해야지요.

이것을 규칙화해서 말하면,

$$A \rightarrow B / _ C$$

와 같이 A가 C앞에서 B로 변한다고 할 때 A에 이것이 다 적용되면 괜찮지만, 어떤 C앞에서는 적용이 되고 어떤 C앞에서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이 [C]음가를 다시 /C/와 /D/들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규칙은 다시 예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C에 C₁, C₂의 두 가지가 있어서 적용여부가 상반되는데 음가상으로는 C₁, C₂가 똑같이 때문에 C₂를 예외로 치든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C₂를 예외로 치지 않고 어떤 보편성을 얻기 위해 C을 두 음운으로 나누면은 예외가 없어집니다.

$$[C] \left\langle \begin{array}{l} /C/ \\ /D/ \end{array} \right.$$

그런데 이때 /D/는 실재하지 않으니 D→C로서 D는 전부 C로 만들어 주는 소위 patch-up rule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까지는 학계에서 이런 형식의 규칙을 대부분 비판이 없이 추종해 왔던 것입니다. 가령 Halle도 1962년의 논문 "Phonology in a generative grammar" (Word 18:54-72)를 보면 가령 어느 언어에 /a/와 /æ/가 있을 때, /a/가 음운변화를 일으켜 전부 [æ]로 합동(merge)되어서 결국 /a/가 사라져 버렸을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의 음운 규칙 중 가령 구개음화 규칙에

$$t \rightarrow \check{c} / _ \text{æ}$$

이 있을 때 어떤 æ 앞에서는 잘 적용되고 어떤 æ 앞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외적인 æ를 잘 조사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a에서 나온 æ에만 적용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Halle는 실사 음운의 합동으로 인해서 그 언어의 a와 æ 중에서 지금은 a가 없더라도 음운규칙상 이러한 간소화의 유래를 설명할 수 있다면은 그 언어의 역사성을 살려서 두 음운으로 봐줄 수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Halle의 설이 세워지니까 누구나 따랐었는데, 요즘 그의 제자격인 Kiparsky가 이런 방식이 부자연스럽다고 반론하고 나왔습니다.

위의 경우도 말하자면 절대중화의 경우로서 /a/와 /æ/라는 두음운이 [æ]로 중화가 되었다 해도, (/낫, 낫/등이 /낫/으로 중화가 되었다가 모음 앞에서는 원음가가 나타나니까 /낫, 낫/등은 각각 독립된 것이라고 주장해도 일리가 있지만) 전혀 어떤 context에서도 원음가가 나타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은 극히 기교적인 trick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이 자기의 규칙을 좀더 간소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예외는 예외로서 그대로 놓아 두지 예외를 없애기 위해서

구대여 이런 짓을 한다면 지나친 기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iparsky는 이 절대중화의 경우 원음가는 하나인데 둘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고, 가령 어떤 단어 $tæ$ 가 있을 때 그 앞에 t 가 pattern ① $/tæ/ \rightarrow [čæ]$ 로서 $čæ$ 로 바뀌는 경우, 이렇게 만드는 규칙을 32번 규칙이라고 가정하여 ③ $t \rightarrow č / -æ$ 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에서는 이와 같이 되지 않는 수도 있을 때 예전처럼 그 언어의 음운을 인공적으로 설정하여 예외가 없는 것처럼 꾸미지 말고, 그 음운이 없으면 없는대로 인정하고 그 대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lexicon에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②/ $\dots tæ$ /[-Rule 32)

즉 어떤 단어 ②에서는 rule feature인 Rule 32가 적용되지 않는다 (minus기호로 표시)는 점을 밝혀서 규칙이 함부로 적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Kiparsky는 절대중화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언어학자들이 자기 규칙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간편하고 보편적으로 되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예외는 예외대로 인정하여 기교가 없는 자연적인 처리 방법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2. 規則의 機能的 單位性(Functional Unity of Rules)

$$\begin{array}{l} 1. A \rightarrow B / _Z \\ 2. A \rightarrow B / _W \end{array} \left. \vphantom{\begin{array}{l} 1. \\ 2. \end{array}} \right\} A \rightarrow B / _ \left\{ \begin{array}{l} Z \\ W \end{array} \right\}$$

$$\begin{array}{l} 3. A \rightarrow B / _Z \\ 4. A \rightarrow B / _ZW \end{array} \left. \vphantom{\begin{array}{l} 3. \\ 4. \end{array}} \right\} A \rightarrow B / _ Z(W)$$

위의 원편과 같은 음운 규칙이 있을 때 수학 공식에서 공통성만 빼내듯이 간단히 오른편 공식으로 줄여 버립니다. 즉, 네 개의 규칙을 두 개로 만드는 것이 이제까지의 일반적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일반화(generalize)라 해서 여러 개의 규칙을 함께 하여(collapse) 소수의 규칙으로 만드니까 이것에 더 보편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Kisseberth 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저대로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졌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나 하면 Yawelmani 란 인디언어에 우리말처럼 CVCCVC 등의 음절 구성 방법이 있는데 어두에 *CC 같은 자음군(子音群)이 올 수 없어 우리말에서 어두나 어말에 자음군이 오지 못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어두나 어미에 자음이 온다면 하나 밖에 오지 못합니다. 가령 국어에서 ‘삼’이 ‘삼’처럼 되어 버리는 현상이 있지요. 그리고 어중에서도 세 자음이 중복될 수 없고 둘 만 허용되는 것이 국어와 같습니다. 가령 ‘읽어’는 허용되어도 ‘읽자’하면 자음이 세개니까 하나가 탈락됩니다. ‘없이, 없고’도 마찬가지입니다. Yawelmani 어도 우리 국어와 거의 같은 음절구성 방법을 가졌는데 이러한 제한을

surface(output) constraints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원형에 있는 제약이 아니라 맨 마지막 형태, 즉 음운규칙을 다 적용한 결과에서 [*#CC, *CCC, *CC#]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지요, 가령 우리말에서 Christmas 라 하면 ‘크리스마스’로 적어 원래 2 음절을 5 음절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국어 음운규칙에 -s 가 마지막에 온다면 -t 로 발음되기 때문에 ‘크리스마트’이라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이같이 원래는 모음을 집어 넣어야 하는 것이 output constraint 의 하나이며 이런 제약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음운규칙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령 국어의 ‘있자, 없자’같이 어간에 자음이 둘인데 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뒤따를 때는 그 자음 중 하나를 탈락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락의 방법만으로 세계의 자음이 겹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음을 하나 삽입해도 해결책이 됩니다. 이같이 세계의 자음이 어중에 중복될 수 없다는 규칙을 범하지 않게 하는 두 방법을 비교해 봅시다.

$C \rightarrow \phi / C_C$ (자음탈락)

$\phi \rightarrow V / CC_C$ (모음삽입)

이 두 규칙은 구조 형식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 네 개의 규칙을 두개로 줄일 때는 명백한 공통점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공통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규칙 사이에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가령 위의 두 규칙과 구개음화 규칙을 나란히 놓고 볼 때는 위의 두 규칙은 외면 구조상으로 탈라도 내면적인 유대관계가 있지만, 구개음화 규칙과는 외면 구조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언어이론에서 구조상으로 유사성이 없더라도 내면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이를 표시하는 방법이 강구되어 있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는 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조상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은 간단히 줄여서 표시할 수 있지만 구조상 다른 것을 표시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국어에서 이런 예를 들면 소위 내파(內破) 또는 미파(未破)현상이라 하여 되도록이면 입을 다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낫’에서 $nas \rightarrow nat$ 으로 되면서 내파음으로 되어 결국 nat^0 로 됩니다. 파열음을 세계 각국어에 걸쳐 살펴 보면 음성학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열음이 있을 때 모음이 오면 어느 나라 말이고 파열시켜야 하지만, 뒤에 자음이 오거나 또는 어말에서 이 파열음을 반드시 파열시켜야 하는 언어 즉 불어에서는 petite 나, 또 Susan(영어의 Susan 는 파열시키지 않고 혀끝을 입천장에 맨 채 안 내려도 됩니다)와 같이 비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혀끝을 내리고 파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hat, cup, book 등을 파열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이 같은 것이 둘째 유형입니다. 셋째 유형은 파열을 엄금하는 국어의 경우같은 것입니다. 가령 ‘낫, 날, 낱, 낫, 낯’ 등을 파열하여 발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유형을 정리하면,

- ① $t^h \left\{ \begin{matrix} \# \\ C \end{matrix} \right\}$ ② t or t^h ③ t^o

와 같이 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ㄱ, ㄴ 변격에서 ‘추워·츄고, 잡아·잡고’와 ‘걸어·걸고, 달아·달고, 와 같이 변격과 불변격이 대조될 때 이를 국어에 특이한 내파현상의 한 가지로 해석하여 극단적인 논리일지는 몰라도 변격현상이 아닌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츄다’에서 원형을 / $chup\text{-}ko$ / 의 / p /가 있는 것으로 보지 말고 / $chuw^u\text{-}a$ /에서 처럼 / w /가 있는 것으로 원형을 정한다면 ‘츄다’를 변격으로 다루지 않고 내파로 다루어도 됩니다. 모음이 오면 ‘추워’와 같이 그냥 원형이 남고 자음이 오면 내파현상에 의해 (/ s /나 / c /가 / t /로 되는 것처럼) / w /가 homogenic 하게 미파되면 / p /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또 예컨대 ‘걸어, 걸음, 걸이’등에서 원형을 ‘걷다’의 / t /로 보지 않고 / r / 그대로 보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걸고, 걸자’등도 내파현상으로서 설명하여 종래에 변칙이라 하던 것을 지양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어에서 어중에 세 자음이 겹칠 때 그 중 하나가 탈락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없고’는 ㅅ탈락, ‘젊고’는 ㄱ 탈락, ‘앉고’는 ㄷ탈락이 됩니다. 이런 예를 보아서는 뒤에오는 어미의 자음은 그대로 남고 어간의 두 자음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되는데 그 중 첫 자음과 둘째 자음 중 어느 것이 탈락되는가 하는 일률적인 규칙을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 보니까 아직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두 자음중에서 개구도(開口度)가 큰 것이 탈락되고 개구도가 작은 것이 남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ㅂ과 ㅅ에서는 ㅂ이 아주 입이 닫히는 것이고, ㅅ는 약간 벌려진 채로 있는 것이며, 또 ㄱ과 ㄴ에서는 ㄴ이 닫히고 ㄱ은 어느 정도 벌려지는 것입니다. 만약 개구도에 따른 탈락현상이 있다는 이 관찰이 정확하다면 결국 이것도 국어의 특성인 내파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조음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입을 다물려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야 게을러서 그런지 노력 경계를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위의 경우도 개구도가 작아서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 남는 것은 사실이죠.

이상과 같은 예들을 처음부터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 ① $\left. \begin{matrix} S \\ C \\ \vdots \end{matrix} \right\} \rightarrow t$ ② $\left[\begin{matrix} w \\ r \end{matrix} \right] \rightarrow \left[\begin{matrix} p \\ t \end{matrix} \right]$ ③ $t \rightarrow [t^o]$ ④ $CCC \rightarrow CC$

이와 같이 규칙을 세워 놓아 봐도 이들 상호간에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각각을 내면적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규칙들 사이에 어떤 유대성 즉 국어의 내파현상 때문에 생기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비유로서 설명

하겠습니다. 스페인이나 멕시코 음식과 우리나라 음식은 맵습니다. 그러나 이런 맵다는 보편성을 드러내는 그 속에는 고추라든가 후추와 같이 맵게하는 조미료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와 마찬가지로 국어에서는 발음을 파열시키지 않는다는 대원칙하에서 여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위의 규칙들이 구조상으로는 달라도 기능상으로는 같은데 이같은 기능을 어떻게 규칙화하여 표시하느냐가 요즘 음운론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구조가 같은 규칙들을 합동해서 간소화시킬 수 있는 이론은 개발되어 있어도 기능이 같은 규칙들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이 아직 강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요즘 논란되고 있습니다.

3. 規則의 順序(Ordering of Rules)

소위 생성문법에서는 순서가 아주 중요시 되는 것이며 문법을 a system of ordered rules라고까지 정의하여, 순서가 이론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우선 i 를 삽입하는 규칙 $\phi \rightarrow i$ (epenthetic i)이 있고 또 동시에 이 언어에 구개음화의 규칙

$$\left. \begin{matrix} t \\ k \end{matrix} \right\} \rightarrow \check{c} / _ i$$

이 있다고 합시다. (가령 우리말에 ‘갈아, 같이’처럼). 이 구개음화 규칙이 삽입된 i 나 원래의 i 에 모두 다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에서는 구개음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두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원래의 음이 i 인 앞에서는 구개음화가 되고 삽입모음 i 앞에서는 구개음화가 되지 않는 경우를 봅시다. 어떤 언어에서 t 와 m , p 등이 함께 올 때 i 라는 모음을 삽입하는 것이 보통이라던 (가령 국어에서 ‘—’ 모음을 중자음 사이에 삽입하듯이) /timp/란 형태가 개길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timp]로만 발음됩니다. 그러나 이 언어에 본래부터 /tip/라는 형태 즉 원음이 i 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구개음화되어 /čip/로 바뀐다고 합시다. 이것생 underlying representation에서 원음 i 인 것만이 구개음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규칙화하려면 그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구개음화 규칙부터 적용하고 다음에 삽입모음 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구개음화 규칙을 먼저 적용하니까 원래부터의 i 앞에 있던 모든 t 들이 \check{c} 로 된 다음에, 비로소 삽입모음으로 생긴 i 는 t 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했어요.

그러나 위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즉 원래의 i 앞에서는 구개음화가 안되고 삽입모음 i 앞에서는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위의 경우와 그냥 규칙 적용의 순서만

반대로 바꾸면 될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합니다. 즉 순서만 바꾸어서는 해결 방법이 안되는 것입니다. 즉 먼저 경우에서 순서를 바꾸어 해결한 방법이 우연히 그럴 듯하게 된 것이지 결코 언어 이론상으로 언제나 타당했던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대의 경우에선 순서를 바꾸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ti_1 /tip/

$ti_2 \rightarrow \check{c}i$ / $\check{t}imi$ / \langle /tmi 에 i 모음을 삽입한 것) $\rightarrow / \check{c}imi/$

위의 i_1 , i_2 는 각각 원음 i와 삽입모음 i를 나타내는데 위의 것은 불변이나 아랫것은 구개음화가 됩니다. 이 때는 얼핏 보기에는 삽입모음 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구개음화 규칙을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도 그게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구개음화를 받아서는 안될 ti_1 이 구개음화를 받게 되면 안 되니까 이처럼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가 그 Hausa 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특히 그 click 이 많아서 유명한 언어에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지만 특히 처격(locative)과 축소사(diminutive) 앞에 접사 y 가 있는데, 원래부터 있는 y 앞에서는 구개음화가 안되어도 이렇게 삽입된 y 앞에서는 구개음화가 됩니다. 이러한 예에서도 순서만 바꾸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말에서도 사동·피동에서 ‘이, 히’등을 넣어서 ‘달다, 달히다; 먹다, 먹히다’와 같이 원형에 사동·피동 형태소를 삽입하면 구개음화가 되어서 ‘다치다, 먹키다’와 같이 됩니다. 또 ‘갈이, 돋이’도 마찬가지입니다.

tathi \rightarrow tač^hi-, kath-i \rightarrow kač^h-i, tot-i \rightarrow toč^h-i

그러면 과연 국어에서 i 앞에서 구개음화가 안되는 것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되는 것도 있지요. 가령 ‘어디, 느티나무, 디디다, 티끌’같은 것은 t, t^h가 구개음화 되지 않습니다. 이 때도 음가상 같은 i 앞인데 왜 안 되느냐 한다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요. 즉 먼저 i는 palatal i이고 나중의 i는 그와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아직 X-ray 나 spectrogram 의 실험은 안 해 보아서 단언할 수 없지만, 이들 i 모음의 내용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i에서 어느 때는 구개음화가 되고 어느 때는 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형태소의 경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kath-i, tot-i와 같이 구분되지만, ‘어디’등은 형태소의 분계선이 없는 하나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i의 앞에 오는 형태소와의 사이에 형태론적인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론을 세운다면 얼핏 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반 정도의 타당성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어에서의 구개음화가 반드시 ㄷ, ㅌ만이 아니라 ㅅ, ㄴ등의 치음과는 다 일어나서 ‘시, 샤, 니, 냐’등에서도 보입니다. 그러면 ‘니, 시’등에서는 어간 어미등의 경계선이 없는데도 왜 이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또 외래어를 보면(물론 외래어는 고유한 국어와 달리 취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도 있겠지만, 외국어는 외국어의 발음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것이고 외

래어라면 이미 그 외국어의 발음이 국어화해서 쓰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주부(<tube), 나시오(<radio)등에서도 고유의 국어 어휘처럼 구개음화가 되는데 그 중간 어디에도 형태소의 경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어의 구개음화를 일률적으로 다루는데는 적지 않은 난점이 있습니다.

또 아까 tathi-에서 hi를 집어 넣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되었는데, 이때 원음의 i와 그 앞의 어간과의 사이에 형태론적 경계가 있으면 구개음화가 된다는 규정이 타당하다면 (물론 예외도 있지만), h와 i 사이에 무슨 경계선이 있어야 할 텐데 없습니다. hi 하면 전체가 하나로 사동·피동의 형태소입니다.

결국 어떤 음운 현상에서 그 원형(underlying representation)과 차후에 음운규칙에 의해서 삽입된 소리들 사이에 차질이 생겼을 때, 이제까지는 그것을 음운규칙의 순서를 가지고 다루어 왔는데 그것이 우연적으로 들어 맞춘 해결방법이지 진정한 언어이론에 입각한 타당한 해결방법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4. 簡要性과 自然性(Simplicity vs. Naturalness)

어떤 규칙을 세웠을 때 표현의 간요성과 자연성이 다 만족된다면 좋지만, 더 간결해졌으나 부자연스러워졌다든가 더 자연스러워졌는데 복잡해졌다든가 할 때 이렇게 상치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불어의 비음 현상에서 on, an, ain 란 철자가 역사적으로는 그 철자대로 [on, an, ain]으로 발음했는데 끝에 오는 비음 요소 때문에 타성이 생긴것입니다. 원래 비모음이 아닌 앞의 것은 목젓을 닫고 공기가 비강(鼻腔)으로 못 나가게 하며 한편 na, ma 등의 순서일 때는 비음이 먼저이므로 목젓을 내리고 공기가 비강으로 나가게 합니다. 앞서 발음에서 처음엔 목젓을 닫고 있다가 비음이 나오면 내려야 하며 만약 비모음이나 비자음이 뒤따르지 않으면 다시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젓이 입술이나 혀끝보다 그 동작이 아주 느린 기관이니까 상당히 빠른 동작이 요구되는 발음에서는 이왕 내려야 할 바에는 그냥 모음도 내려서 하겠다는 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음이 비음이 되며 그 다음에 비음이 온다는 예고를 하여 주므로 뒤에 오는 자음은 빠져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어의 비모음이 발달했다는 것인데 항상 이런 철자가 비모음으로만 되면 불어 모음체계 속에 비모음만 남겨두면 되겠으나 어떤 경우에는 n의 발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령 paysan[peizã]이 paysanne[peizan]라고 여성형으로 하면 n음이 나옵니다. 이 때 이들을 fin[fɛ̃]/fɛ̃/과 fine[fin]/fin/의 경우처럼 전혀 별개의 두 단어처럼 보면 상관없겠지만, 위의 것은 남·여성이 다를 뿐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음운으로 표시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니까 같은 음운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표시해 보자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입장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면 현재의 이론은 /fin/을 택해서

원형으로 하고 n이 탈락되면 i를 비모음 $\tilde{\epsilon}$ 으로 만들어 주자는 처리 방식이 택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붙어에는

$$V \rightarrow \tilde{V} / _N$$

의 규칙 즉 비음 앞에서 모음이 비음화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bon, bonne의 경우가 \tilde{o} 과 on가 교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예컨대 pont[p \tilde{o}]에서는 교체되는 짝이 없는데, 이 비모음은 비모음이 아닌 것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 규칙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음운자체를 애초에 /p \tilde{o} /으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붙어에 위의 규칙이 있는 이상 /pon/를 소급적으로 가정하여 거기서 /p \tilde{o} /을 유도해 내야 할 것이냐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구개음과 현상으로 g가 j가 되는 경우, 예컨대 pedagogue가 [g]음인데 형용사 pedagogic은 [j]가 되며, legal과 legislature, margret와 margie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어에도

$$g \rightarrow j / _i$$

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giraff에서 /giraf/를 원형으로 삼아서 위의 규칙을 적용하여 거기서 /jiraf/를 만들어 내느냐 아니면 영어에 이미 j라는 음이 judge 등에서 존재하니까 처음부터 /jiraf/로 하느냐가 문제됩니다. 이것을 소위 free-ride principle이라고 하여 이미 있는 규칙을 그냥 이용하여 편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미 있는 규칙을 그냥 타고 자연적으로 변하게 하는 과정을 나중 경우처럼 교체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적용한다는 예를 국어의 경우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구개음화로서

$$\text{ㄷ} \rightarrow \text{ㅈ} / _ \left\{ \begin{array}{l} i \\ y \end{array} \right\}$$

$$\text{ㅌ} \rightarrow \text{ㅊ} / _ \left\{ \begin{array}{l} i \\ y \end{array} \right\}$$

의 규칙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전차’와 관련시켜 봅시다. 그런데 국어에서 ‘다’가 [자], ‘더’도 [저]로 되어 말하자면 자음들은 모두 ㄷ으로 대치할 수 있으므로 ㅈ 계열의 음운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jiraf/를 유도하기 위해 /giraf/를 원형으로 놓듯이 /tya tyən: thya/를 원형으로 세워 자연적으로 /cacəncha/란 발음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ㅈ, ㅌ, ㅊ 계열의 음운은 필요가 없어져서 음운의 수를 줄일 수 있어 간소화하게는 되었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우냐가 문제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cacəncha/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훨씬 부자연스럽겠습니다.)

또 한 예를 들면 국어에 \tilde{h} 이 들어가서 ‘송것, 송담, 송범, 송개’등으로 된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h가 들어가서 기음화된 것이라 보지 않는다면 k \tilde{h} , t \tilde{h} 등의 발음이 나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어에 결국 suh-라는 형태소가 있다는 것이 확실한데(마치 ‘좋다’에서 t \tilde{h}

가 되는 것이 h 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만약 suh-nom 에서는 발음이[sunnom]이 되어 바뀌 쓰면 송눔→순눔(h→n)이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음운규칙으로 바꾸면

$$h \rightarrow n / _n$$

과 같이 간단히 되지만 음운이론상으로 볼 때 이 규칙이 자연스러우냐는 좀 의심됩니다. 즉 후음 h 가 비음 n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것끼리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발음할 때 h는 목젓을 닫고 혀를 낮추며 n은 목젓을 내리고 혀끝을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 t가 n으로, s가 n으로 되었다든가 하면 크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날말’에서 ‘난말’이 되는 것은 조음위치가 같아서 비음화 되었다든가, 같은 비음인데 그 조음위치만 조금 옮겼다든가 하면 자연적이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h를 n으로 바꾸어 놓으면 이것은 마치 p가 r로 되었다든지 s를 k로 바꾸었다든지 하는 것만큼이나 동떨어진 변화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자음을 모음으로 바꾼 것만큼 심한 경우는 아닌지 모르지만 상당히 먼 거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h \rightarrow n / _n$ 규칙은 음운 규칙으로는 간단하긴 해도 현대의 음운이론상으로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단계적으로 $h \rightarrow s \rightarrow t \rightarrow n$ 의 가공적 과정을 형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님→성님’처럼 같은 파열음끼리 변화하여 h가 s로 바뀔 수 있고, 또 s가 t로 되는 것도 ‘옷이’가 ‘옷과, 옷’으로 되는것 처럼 가능하며, 또 t가 n으로 되는 것도 ‘닫는다’가 ‘단는다’로 되는 등의 많은 예가 있어 모두 타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한데 이것이 과연 $h \rightarrow n$ 으로 직접 바꾸는 것보다 자연스럽게기는 해도 아주 복잡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바꾸는 것도 그 중간단계의 발음에서 마침 과도적인 형태를 적용할 수 있는 실례가 있으면 좋은데 전혀 그런 중간 단계의 예가 없이 직접 바뀌어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해결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중간 단계의 발음변화를 설정할 수 있으면 복잡하게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무슨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힘 자라는 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質疑應答 省略).